

# 옛 전남도청 복원 약속 언제 지키려나

문대통령 작년 5·18때 '원형 복원' 당국 뒷집에 복원사업 첫발도 못 떴 오월 어머니들 청와대 앞 분수대서 조속 이행 촉구 삭발 농성 돌입



26일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5.18 유족들이 옛 전남도청 복원을 촉구하며 삭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님이 하신 약속!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주세요. 5·18최후의 항쟁지이자, 5·18의 상징과도 같은 공간, 옛 전남도청 원형을 약속대로, 더는 늦지않게 꼭 좀 복원해주세요.”

장맛비가 쏟아지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 흰색 비옷을 입은 5·18유족회 회원들로 구성된 '오월어머니' 6명이 나란히 서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해 5·18기념사에서 약속한 대로 옛 전남도청을 복원해달라'고 외치며 삭발시위를 감행했다.

이들은 5·18 민중항쟁 당시 시민군들의 최후 항전지였던 옛전남도청 복원을 요구하는 '옛 전남도청 복원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이하 대책위) 소속으로 활동해왔다. 지금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한 예술관으로 전락해버린 옛 전남도청 앞에서 658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옛 전남도청에서 숨진 권호영(당시 19세) 씨의 어머니 이근례(80) 씨가 5·18민중화운동부상자회 추혜선(62) 이사의 머리카락을 직접 잘랐고, 이씨 자신도 삭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총리, 도종환 장관의 의지표명은 있었지만 일이 진척되고 있지 않다"며 "말이 아니라 실천이 중요하데 이런저런 이유로 복원사업의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간 평창동계올림픽, 남북정상회담, 지방선거 등으로 바빔 것만 생각에 참고 기다려

왔는데 마치 대책위를 민원인 취급하며 대책위가 원하니 복원한다는 식으로 행동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헌법에 '오월 정신'을 담고자 하는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월어머니들은 "옛전남도청을 복원하는 것은 적폐청산이자 거꾸로 된 역사를 바로잡는 일이자, 문 대통령과 광주시민의 약속"이라며 "그런데도 책임 있는 당국자 누구도 나서지 않고 문화전당 실무과 장에게 모든 것을 맡긴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 책임 있는 당국자와 일을 풀어나가 달라"고 호소했다.

오월어머니들과 행동을 같이하는 황성호 대책위 상황실장은 "문 대통령의 약속에도, 정부는 복원사업 주체가 자신들임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태가 잇따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실장은 "1년이 넘도록 아무런 진척이 없다. 복원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업체 입

찰공고를 낸 게 전부이고, 이마저도 응찰자가 없어 유찰만 거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실장은 그러면서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약속 이행이 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인지 확인하고 명확한 답을 줘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 앞 삭발 시위에 나선 오월어머니들은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나오기 전까지 분수대 광장에서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월 3단체, 5·18기념재단도 이날 회의를 열고 오월어머니들과 뜻을 같이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책위와 복원 협의를 진행 중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측은 "(기자회견 이후) 긴급 회의를 진행 중이다. 아직 뭐라 답변드릴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김형호 기자 khh@

# 전남도교육청 일반직 702명 인사...215명 승진

행정국장에 박성수씨 승진 임용

전남도교육청은 26일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이종범 행정국장 후임에 박성수 장학공공도서관장을 3급으로 승진, 임용하는 등 일반직 공무원 702명에 대한 7월 1일자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명단 22면> 승진 대상은 215명이다. 3급 승진 1명, 6급 승진 83명, 7급 승진 116명, 8급 승진 15명이다. 전보는 358명 규모로, 공로연수-정년(명예)퇴직 등 122명, 신규임용 7명이다. 이번 인사는 퇴직 등으로 발생하는 상위직급 결원에 대한 승진인사와 결원기관의 충원을 위한 정기인사라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내달 1일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이종범 행정국장 후임에는 박성수 장학공공도서관장이 3급으로 승진 임용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6급 이하 공무원 승진은 격무부서와 도서지역 근무자를 우대했고, 전보는 본인의 희망지역을 반영하여 전보서열 명부를 사전에 공개하여 명부 순으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주신 3기 교육감 출범(장석웅 당선인 취임)에 따라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정기인사도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전문대학교육협의회 '대학역량진단 전문대 차별'

광주-전남 지역을 포함한 전국 주요 전문대 총장들이 교육부의 2018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잠정 결과에 대해 4년제 대학과 전문대 간의 형평성이 훼손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회장단은 25일 서울에서 회의를 열고 대학 기본역량진단 1단계 평가에서 전문대가 차별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며 정부의 정책 개선을 촉구한다고 26일 밝혔다. 전문대교협에는 광주-전남지역에서 고구려대, 광양보건대, 광주보건대, 동강대, 전남과학대, 전남도립대 등이 포함돼 있다.

앞서 교육부는 대학 기본역량진단 1단계 잠정 결과를 발표하며 4년제 대학은 160곳, 전문대는 87곳을 자율적 구조조정이 가능한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했다. 잠정 결과가 오는 8월 확

정되면 나머지 대학들은 정원 감축과 재정지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전체 평가 대상이 4년제 대학은 187곳, 전문대는 136곳이므로 예비 자율개선대학이 차지하는 비율은 일반대와 전문대 모두 64%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대교협은 종교계열 등 일부 대학이 평가에서 빠졌기 때문에 실제 평가받은 대학만 놓고 보면 일반대는 75%(160곳 가운데 120곳), 전문대는 65%(133곳 중 87곳)가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됐다고 반박했다.

회장단은 전문대 자율개선대학을 13곳 추가해 선정비율을 75%로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전국 평균보다 선정비율이 낮은 수도권과 강원권의 경우 2단계 평가에서 다른 지역과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 5·18기념재단, 5·18진상규명위원 위촉 촉구 공문

국회의장실·여야 각 당에 보내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26일 "5·18 진상규명조사위원 위촉을 촉구하는 공문을 국회의장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에 보냈다"고 밝혔다.

5·18재단과 5월 3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올

해 3월 공포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을 두 달가량 앞두고 있지만, 아직 국회가 추천하는 9명의 위원이 확정되지 않아 향후 위원회 활동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18 진상규명은 국민과 시대의 여망"이라며 "국회의장과 원내교섭단체를 이루는 5개 정당은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구성할 수 있도록 위원 위촉에 서둘러라"고 강조했다. /김용희 기자 kimyh@

# 수사기관 휴대전화 발신 위치 추적 위험 여부 내일 선고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휴대전화 발신 위치를 추적하는 '실시간 위치추적'과 특정 기지국을 거쳐 이뤄진 통신자료를 수집해 수사에 활용하는 '기지국 수사'가 헌법에 어긋나는지 28일 가려진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송경동 시인과 김모 기자 등 5명이 통신비밀보호법 2조와 13조가 통신비밀자료를 침해한다며 낸 3건

의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고 26일 밝혔다. 통신비밀보호법 2조는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확인할 수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에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 휴대전화로 통화했는지 이 자료에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연합뉴스

**달빛동맹 한마음 행사**

# 달빛소나기

달빛은 '달구별' 대구와 '빛고을' 광주를 뜻하고, '소나기'는 소통 + 나눔 + 기쁨을 표현한 합축어로서 '달빛동맹 한마음 행사 달빛소나기'는 대구와 광주의 젊은이들이 만나 '소통하고 나누는 기쁨'을 얻는 화합의 행사입니다.

**달빛나눔콘서트**  
DJ Juncoco

**멘토특강**  
대표 류재현 (문화기획자/가치기업 루스)

**2018. 7. 7 SAT - 7. 8 SUN**  
**광주신양파크호텔**

7월 7일(토)	part1, 달빛소통	14:00~17:00	광주문화재단 투어 / ACC관람
	part2, 달빛나눔	19:00~22:00	멘토특강 / 공감콘서트
7월 8일(일)	part3, 달빛기쁨	09:00~15:00	빛고을 문화 투어

▶대 상 : 지역 문화예술인 및 문화에 관심 많은 열정적인 광주 청년(20~30대)  
▶참가시간 : 2018. 7. 7(토) 18:00~22:00 ▶모집기간 : 2018. 6. 29(금)까지  
▶모집인원 : 선착순 80명 ▶참가비 : 없음(식사/기념품 제공)  
▶참가방법 : 이메일 접수 saup@kwangju.co.kr ▶문의 : 광주일보 문화사업국 062-220-0541

주최 **광주일보 영남일보** 주관 **아시아문화** 후원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대구광역시 DAEGU CITY**